

12월26일

[USD/KRW]

USD/KRW 예상 : 1450~1461원
NDF 증가 : 1457.30 (Swap point : -1.60, 1458.90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지속되는 글로벌달러 강세 흐름에 상승 압력 우세할 것으로 전망. 간밤 미국채수익률 상승에 따른 강달러 분위기에 서울 새벽2시 종가는 정규장 증가 대비 상승한 1457.5원, 역외 달러원 역시 현물환 기준 2.5원 오른 1457.3원 마감함. 이를 반영하여 금일 서울환시 달러원 1450원대 후반 개장 후 상승세 예상. 다만 고점 인식에 따른 매도물량 및 당국 스무딩 경계감은 1460원대 상단 제한할 요인임
- (전일 동향) 24일 달러원 환율은 1451.5원 개장 후 연말 한산한 거래량 속 결제수요 우위에 상승세 흐름.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 및 국민연금 환헤지 가능성에 상단 제한되기도 하였으나 연말 네고물량 소진으로 상승 압력 우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 제기되며 상승 재료로 작용하며 15시30분 종가 1456.4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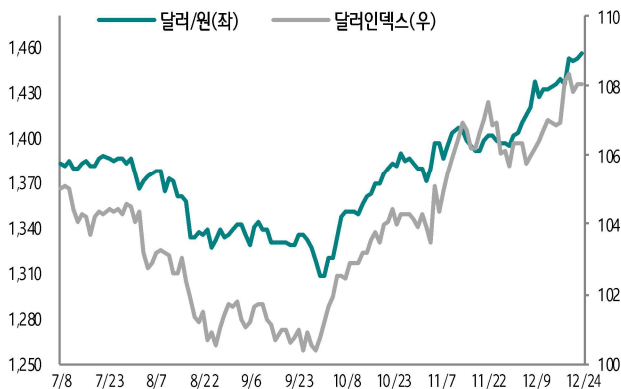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 미 국채수익률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
- 국내 정치불안 장기화 우려
-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 고점 인식에 따른 네고 출회
- 연말 롱포지션 정리 물량

KRW, USD Index



자료: 인포맥스

[Glob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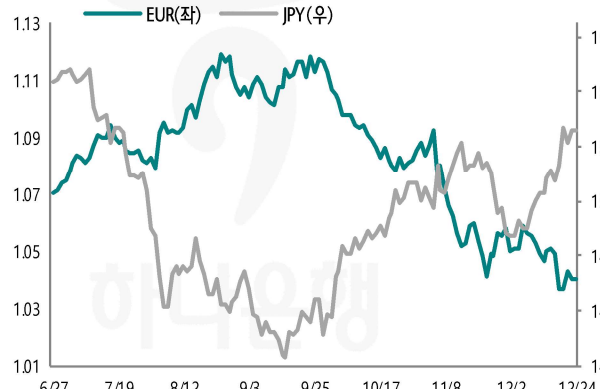
EUR/USD 예상 : 1.0345~1.0445
USD/JPY 예상 : 156.80~157.80

- (USD Index)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한산한 거래량 속 미국채수익률 상승세 반영하며 달러 강세 흐름. 달러인덱스는 108.3선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상승폭 일부 반납하며 전장 대비 보합 수준인 108.09 기록
- (EUR) 유로화는 미연준과 타 국가 중앙은행 간의 통화정책간 차이에 따른 달러 강달러 분위기 반영하며 약세 흐름.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소폭 하락한 1.04045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우에다 가즈오 총재 발언을 대기하며 하락세 유지하다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확인하자 상승 전환. 달러엔 환율은 전장 대비 상승한 157.226엔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108.09 (+0.01)	
EUR/USD	1.0405 (-0.0002)	1515.30 (+4.35)
USD/JPY	157.22 (+0.09)	926.49 (+2.51)
USD/CNH	7.3075 (-0.0019)	199.27 (+0.63)

EUR, JPY



자료: 인포맥스

[Macro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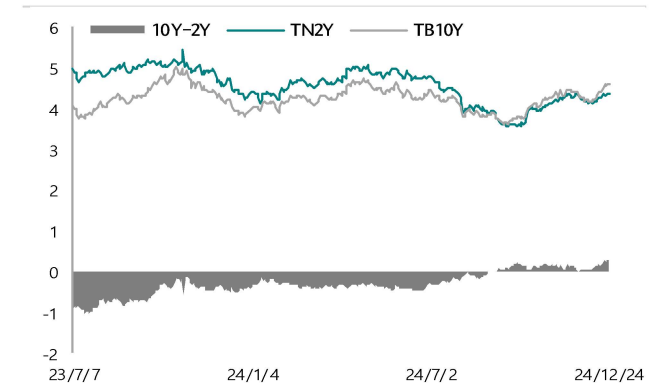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24.20bp (전일대비 -0.30)

- 미 11월 신규주택판매가 전월 대비 5.9% 증가하며 신규주택판매 속도가 회복되는 흐름.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미연준의 내년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1.4%, 25bp 인하 가능성은 8.6%로 가격에 반영. 미국채수익률은 연말 한산한 장세 속 연준의 매파스탠스, 인플레이 우려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계감에 상승. 연후 앞둔 포지션 조정에 상승폭 일부 반납 및 미 재무부 5년물 입찰 호조에 하락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상승세 되돌리기에는 역부족. 뉴욕 증시는 '산타렐리' 편승하며 저가매수 유입으로 인한 상승세에 다우지수 +0.91%, S&P +1.10%, 나스닥 1.35% 마감함. 유가는 중국 정부의 내년도 3조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 소식에 따른 부양책에 기대감에 1% 이상 상승 마감함.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14:00	일본 11월 주택착공(YoY)		-2.9%
20:00	프랑스 실업수당청구	60.0K	53.6K
22:30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23K	220K

US Treasury Market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속되는 글로벌달러 강세 흐름에 상승 예상